



9명 스님들의 석 달 천막수행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16일 토요일 옹맹정진에 참석한 한 불자가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상월선원 철문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다.

다시 피어난 초발심...정진열기 뜨겁다

곳은 날씨에 선원상황 ‘최악’
원만회향 발원 정진열기 고조
선원 철문에는 소원지 줄이어

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오후2시를 조금 넘기자 동안거 정진에 함께하려는 재가 신도들이 속속 도착했다. 기도의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 커다란 대북도 등장했다. 사물을 활용한 스님들의 신묘장구대다라니 독경이 시작되자 대중들도 빠르게 기도에 몰입했다. 한 시간이 흐르고, 석가모니불 정과 108배에 이르는 참선 시간. 밖에서는 시종일관 공사 소음이 이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일체 마동 없이 자기 안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이어진 2부 범회. 오후3시30분부터 한치의 오차 없는 정진이 칼 같이 들어갔다. 장엄한 북소리에 맞춘 염불은 희유의 세계로 인도했다. 고성염불은 40여 분간 이어졌다. 4시10분 대다라니 21독을 마친 직후, 기도 대중들은 석가모니불 정경을 하며 직접 작성한 소원지와 등을 선원 울타리에 달았다.

선원 산자락에 있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내려온 대중들은 마음나누기 시간도 가졌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로 향하듯, 다양한 소감들은 결국 하나의 발원이 되었

다. 결제 대중들이 문 없는 문을 부수고 나올 때까지 힘을 모으겠다는 다짐이다. 매일 예불을 올리고 있는 환풍스님의 이야기부터 시작됐다.

“출고 배고플 때 도심(道心)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계사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멋져 보입니다.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을 보면 닳지 않는 배터리 같아요. 쉴 틈을 안 주고 휘몰아 치듯 기도를 이끌었어요. 불교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신행생활도 더 깊어지길 기원합니다.”

신성현 동국대 불교대학장의 소감도 눈길을 끌었다.

“1986년도에 성철스님을 뵈었어요. 스님의 형형한 그 눈빛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불교는 결사를 통해 불교정신을 되살린 역사가 있습니다. 초발심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9분 스님들도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원력으로 저곳에서 정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 기쁘고 희유합니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이번 결사를 계기로 한국불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를 기도했다.

“지난 25년 간 종단 일을 도와주면서 느꼈던 것은 갈수록 불교가 침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있지만 토요일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입니다. 한국불교가 새롭게 도약했으면 하

는 마음뿐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구명위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근호 씨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불교를 잘 모르지만, 자승스님을 뵈고 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통진당이 해산되고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때 스님께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런 자비심이 부처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다시 올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종래 동국대 이사를 비롯한 동국대 산하 임직원들도 대거 참석해 결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기흥 중앙신도회장도 스님들 모두 건강하게 정진을 마칠길 기원했다. 어느새 오후5시. 햇벌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자 추위가 찾아왔다. 몸도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정진 대중들은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기를 기원하는 발원문 낭독과 반야심경 봉독으로 이날 기도를 마쳤다. 바람에 날리는 소원지도 사부대중의 원력을 힘을 실는 듯했다.

한편 위례 상월선원에는 현재 전국 사찰 신도들의 기도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은 서울 수국사, 14일은 봉은사와 성남 봉국사, 15일은 안동 봉정사, 안동 연미사, 대구 성화사, 양양 낙산사, 서울 구룡사, 진관사 등에서 선원을 방문해 정진을 실시했다.

하남=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선방 문고리 잡으러 온 불자들...

예로부터 선방 문고리만 잡어도 삼악도를 면하고 삼세업장이 녹으며 성불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선방 문고리가 그리도 영험한 것일까. 천막선방 상월선원에도 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올리려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동안거 결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6일에도 이런 장면이 펼쳐졌다.

이날 굳게 걸어 잠근 철문 앞. 목숨 건 스님들의 고행 정진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가 합장 반배로 지극한 기도를 올렸다. 이어 문고리를 잡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스님) 건강하세요”라고 읊



조했다. 방창덕 조계종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분단 임원, 정청현 서울지역단장, 김영석 충북지역단장 등 10여명도 선방 앞에서 기도했다.

정청현 단장은 “다라니를 독경하며 어둡고 산만한 기운을 다 씻어냈다. 그간 있었던 서울지역단의 시련을 딛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려고 이곳을 찾았다”며 “오는 2020년 서울 지역 포교 사들과 함께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던 지난 14일에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곳을 찾아 선방 문고리를 잡고 기도발원을 했다고 외호대중들이 전했다.

■ 인터뷰/ 상월선원에 24시간 상주하는 효연스님

“오직 원만회향
소임 다할 뿐이죠”

9명의 대중 스님들이 무사히 회향할 수 있도록 상월선원 밖에는 24시간 상주하며 생활하는 대중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효연스님(사진)이 꼽힌다.

양평 상월사 용문선원 의정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서울 수국사에 상주하며 동국대에서 공부하다, 학교를 휴학하고 외호대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천막법당 옆 컨테이너 박스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스님은 오전4시에 일어나 5시 새벽예불 및 참선, 오전7시에 전



날 들어갔던 도시락을 받고, 다시 10시 50분께 배식구로 공양이 들어가도록 함께 울력을 한다. 오후에는 총도감 해일스님을 보좌하며 방문객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안내하는 소임을 보고 있다. 이어 오후6시 예불을 올리고 참선하는 등 쉴 틈 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

하루 있었던 일을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효연스님은 이날 “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막에 비가 새는데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어 답답한 마음도 든다”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감격스럽기도 하고 신심이 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아껴주신 마음에 **성우상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거위털 두루마기**와 **동방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하며 세탁시 물빨래 가능합니다. 구겨지지 않고 흡습, 발산 공기층의 형성으로 땀이 차지 않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전제품 거위솜털 800FP) -비구니, 비구스님 공용-



전누비 두루마기 88만원



땀 차지 않고, 기립지 않고 물빨래 가능하고 따뜻합니다. 거위털 모자 5만원 / 7만원



반동방 74만원



누비사복바지 55만원



최고급 거위털 롱코트 54만원

전제품 10% 인하

불교박람회 참여 업체

상담가능 전국 방문

전제품 거위털
사이즈 M, L, XL, 2XL

- 누비적삼 50만원
- 실내 저고리 23만원
- 속조끼 14만원
- 속바지 38만원
- 겹조끼 18만원
- 중량점퍼 35만원
- 복대 5만원
- 버선 8만원
- 목도리 대 5만5천원
- 목도리 중 2만8천원
- 목위머 1만6천원
- 휴대용 이불 M2 (105/148) 14만원
- 휴대용 싱글이불 겸 배낭 M3 400g 30만원
- 사계절 이불 600g 55만원 (이불 그래픽 조절 가능)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
로타리상가 B층
대표번호 : 02)2679-2848
남 성 우 : 010-3707-7016

※단추와 옷고름(선택) 맞춤도 가능하며 맞춤시 방문해 드립니다. www.namsungwoo.co.kr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

전선간격 :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7미터주문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선로 17-1